민주 샌더스·공화 트럼프 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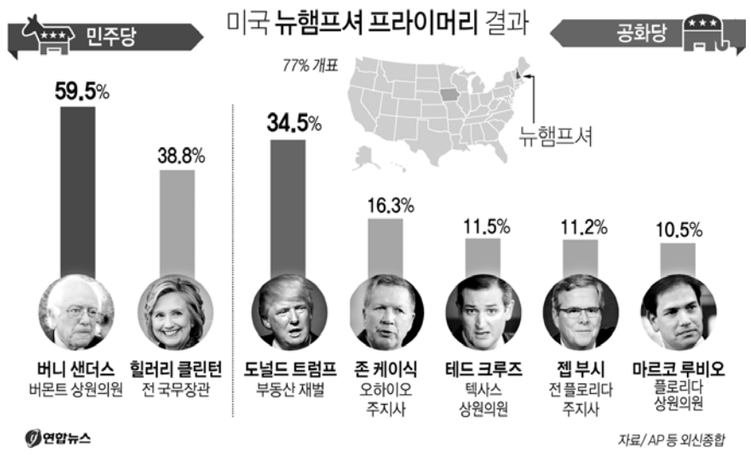
美대선 풍향계 뉴햄프셔 경선

2위와 득표율 격차 20%P 이상

샌더스·힐러리 장기전 예고

트럼프는 독주할 가능성

8일(현지시각)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의 팰리스 극장에서 연설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연합뉴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번 째로 치러진 9일(이하 현지시각)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함께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이번 프라이머리에서 그동안 주춤했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세게 부활함에 따라 경선전은 앞으로 흥미진진한 장기전이 될 공산이 커졌다.

10일 새벽 2시20분께 개표가 92% 진행된 민주당 예비선거의 경우 샌더스 의원이 60%를 얻어 38%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22% 포인트의 격차로 눌렀다.

역시 개표가 92% 진행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가 35%를 획득해 16%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를 19% 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승자가 됐다.

이어 3위 자리를 놓고는 지난 1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12%),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11%),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11%)이 막판 접전 중이다. 다음으로 크리스 크리스티(7%), 칼리 피오리나(4%), 벤 카슨(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지난 1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선전을 펼치며 석패했던 샌더스 의원은 앞으로의 향후 경선 과정에서 더욱 거센 돌풍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클린턴 장관은 전국적 지지율 우위에 터잡은 대세론이 타격을 입으면서 향후 경선 과정이 험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득표율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져 클린턴 후보의 전국적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네바다 코커스(20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27일), 12개 주가 동시에 실시하는 슈퍼화요일(3월1일) 경선을 거치며 압승을 거둬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절박한 처지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크루즈 의원에게 당했던 일격을 단번에 만회하며 다시 돌풍을 점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욱이 아이오와 승자인 크루즈 의원을 3위로 멀찍이 따돌리고 아이오와 코커스의 '강한 3위'로 부각됐던 루비오 의원도 큰 폭으로 누름에 따라 향후 레이스에서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왔다.

이번 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출된 뉴햄프셔 주의 대의원 숫자는 민주당이 24명, 공화당이 23명으로, 각 후보가 득표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배분받게 된다. 개표 92%를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은 샌더스가 13명, 클린턴은 9명을 각각 확보했고 2명이 미정이다.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가 10명, 케이식이 3명, 크루즈가 2명, 부시가 2명의 대의원을 차지했고 6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젠 사우스캐롤라이나·네바다"

20·27일 경선…경선 판세 분수령 될 듯

미국 대선 경선 1, 2차 관문인 아이오와 주(州) 코커스(당원대회)와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미 정치권의 관심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첫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개최하는 상징성 때문에 대선풍향계로 불린다면 이들 두 곳과 함께 2월에 경선이 치러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는 초반 경선판의 흐름을 좌우하는 일종의 분수령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는 남부, 네바다 코커스는 서부의 대선 본선 민심을 각각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 공화 양당의 선두 주자들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각각 1승 1패의 성적을 거둔 상황이라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각각 아이오와, 뉴햄프셔를 승리로 장식했고,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가 두 곳에서 각각 첫 승리를 이뤘다.

양당 주자들은 9일(현지시각)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로 각각 이동해 11일간의 3라운드 결전에 돌입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는 20일 각각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3차 경선을 치르며 이후 공화당이 23일 네바다, 민주당이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4차 경선을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다. 첫 승자독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의원은 50명으로 숫자도 많은 편이다. 아이오와 대의원 30명을 놓고 1위 크루즈 의원이 8명, 2위 트럼프가 7명, 3위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6명, 그리고 군소후보들이 나머지를 나눠 가진 것을 고려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파이'가 큰 곳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된다.

더욱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된 지역으로, 아이오와처럼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이어서 보수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의미가 큰 곳이다. 현재 여론 흐름을 보면 민주당의 클린턴 전 장관, 공화당의 트럼프가 두 곳 모두 압도적 우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 발사…얼어 붙은 남북경협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남측 주도 중단은 처음

입주기업 피해 불가피

"상징성 유지해야" 목소리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결국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남북 경협 사업은 말 그대로 '올스톱' 상태가 됐다.

◇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수순…남측 주도 전면 가동중단 결정은 처음**=정부가 10일 밝힌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숱한 부침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왔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2010년 11월)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정부는 결국 폐쇄를 전제로 한 전면 조업중단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부터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 공단에 머무는 우리 인력 850명을 650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일에는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강력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대책이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어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던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는 데 결정적 동인이 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134일간 문을 닫았다. 입주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바 있다.

◇ **남북경협 채널 모두 '꽁꽁'…출구가 안 보인다**=마지막 남은 남북 간의 경협 채널이자 완충지대 기능을 해온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게 되면서 정부가 구상하던 남북경협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경협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받고 있다.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와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기도 전에 뒷걸음질치면서 남북 경협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경협 빙하기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 경협의 상징성과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의 외화벌이 채널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입주기업들이 볼 손해를 생각해야 한다"며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일 열차 충돌 참사 9명 사망·150명 부상 9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에서 통근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최소 9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게 다쳤다. 열차 두 대는 모두 부분적으로 탈선했으며 일부 객차는 전복됐다. 이 사고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50명은 중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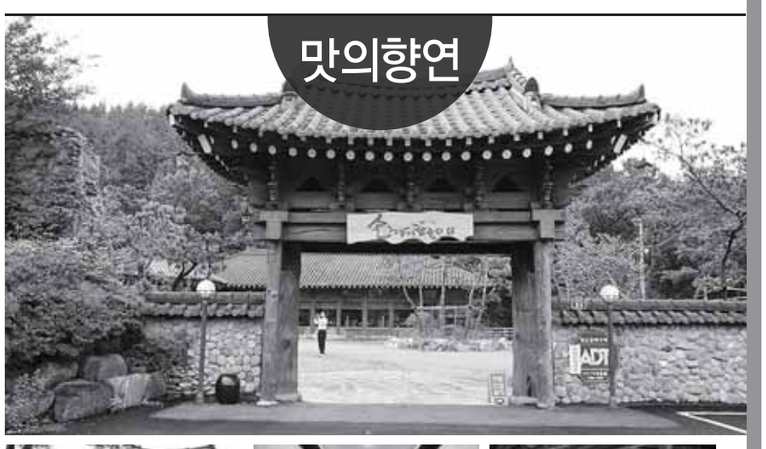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북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